

모두가 최선 대해 IMF이전 수준 되찾아

물량은 IMF이전 수준, '금액'은 새농약으로 늘어나
'수입액·수출액' 각각 28.4%·16.9% 늘어 '97년 수준



지난해 국내 농약 생산·출하량을 보면 98년보다는 다소 늘어나 IMF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도 IMF관리체제 하에서의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을 감축한데 기인한 것으로 최근 농약공업협회가 최종 집계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작물별 생산·출하량을 보면 수도용 살균제는 다소 늘었으나 살충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용 농약은 각종 병해충 다발생으로 살균·살충제 모두 늘어났다. 반면 제초제의 생산은 오히

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예용 제초제의 출하는 전년과 비슷하였으며 수도용은 다소 늘어났다. 특히 기타제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낸 전년과 대조를 이루어 생산·출하 모두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증가세를 거들었다.

지난해 국내 농약 생산·출하상황을 작물별, 약제별, 형태별로 상세히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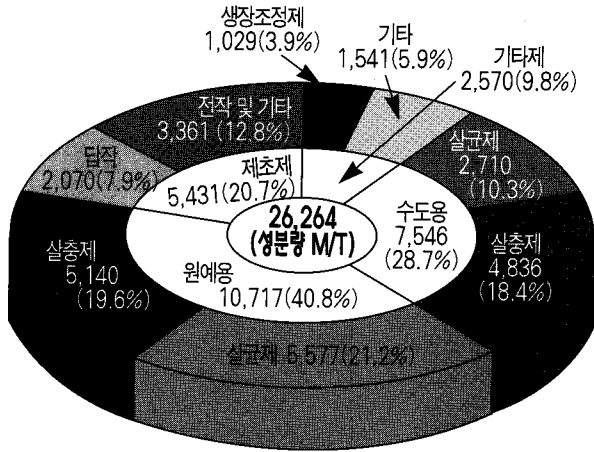
농약생산·출하상황

생산

1999년도 농약생산량은 2만6천2백64톤으로 98년도 2

만2천73톤보다 19.0%가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 됐다. 이는 98년도 IMF관리체제 하에서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로 생산을 감축한데 기인한 것으로써 IMF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작물별로 보면 수도용 농약은 7천5백46톤으로 7천9톤을 생산한 전년도에 비해 7.7% 증가한 반면 원예용농약은 1만7백17톤으로 전년도 7천8백97톤에 비해 35.7%나 증가함으로써 각종 병해충이 다발생 하였음을 입증해 주었다. 제초제는 5천4백31톤으로 5천5백



〈작물별 약제별 생산량 구성비〉

94톤의 전년도 보다 오히려 2.9%가 줄어 들었으며 성장조정제 등 기타제는 2천5백70톤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63.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 보면 유제가 1만2백62톤으로 전체의 39.1%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화제가 7천9백88톤으로 30.4%를, 입제가 5천3백74톤으로 20.5%를, 수용제가 3.3%, 분제가 1.2%를 각각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화제와 유제는 전년대비 각각 48.7%, 13.4% 증가한 반면 분제와 입제는 전년도 보다 12.8%, 5.2% 각각 감소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점차 사용하기 편리한 제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농약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용도별 점유율을 보

면 살충제가 9천9백76톤으로 전체의 38.0%를 점유하고 있으며 31.6%, 20.7%, 9.7%를 각각 점유한 살균, 제조, 기타제 순이다.

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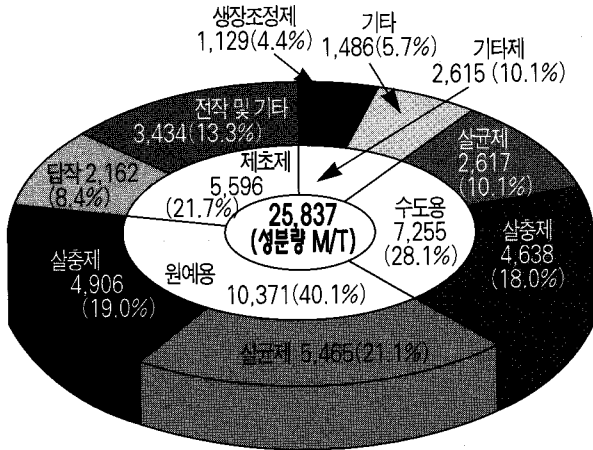
1999년도 농약출하량은 2만5천8백37톤으로 전년도 2만2천1백3톤 보다 16.9%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9천3백27억원으로 8천4백27억원의 전년도 보다 10.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물량 증가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약제별로 살펴보면 살균제는 8천82톤으로 6천5백43톤을 출하한 전년도 보다 23.5%가 증가하였고 살충제는 9천5백44톤으로 전년도 8천7백65톤에 비해 8.9%가 증가하였다. 제조제 역시 5천5백96톤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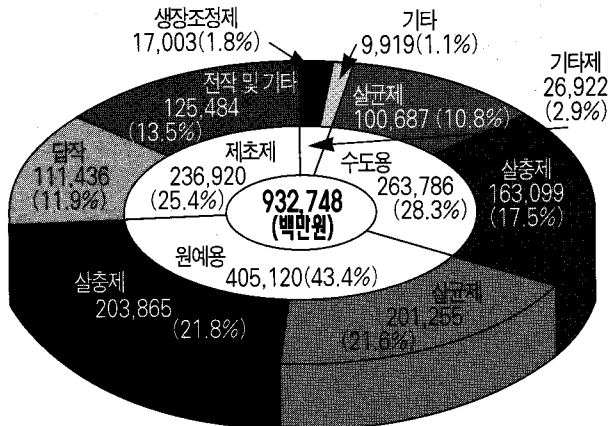
으로써 5천1백16톤의 전년도 보다 9.4% 늘어났다. 한편 성장조정제 등 기타제는 2천6백15톤으로 전년도 1천6백79톤 보다 55.7%나 증가했다.

작물별로는 수도용 살균제가 2천6백17톤, 살충제가 4천6백38톤으로 전년도 보다 약간씩 늘어났다. 반면 원예용은 살균제가 5천4백65톤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32.6%나 증가하였고 살충제 역시 4천9백6톤으로 10.5%가 늘었다. 생산이 다소 줄어든 제조제는 담작이 전년에 비해 13.6% 늘어난 2천1백62톤을 출하하였으나 전작 및 과원잡초약은 3천4백34톤으로써 6.9% 증가에 그쳤다. 또한 기타약제 중 성장조정제는 1천1백29톤을, 기타제는 1천4백86톤을 나타내 각각 36.7%, 74.2%씩 증가했다.

매출액 기준 작물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원예용농약이 4천51억원으로 전체의 4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도용이 2천6백38억원으로 28.3%를, 2천3백69억원을 기록한 제조제가 25.4%를 각각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조정제 등 기타제는 2백69억으로 2.9%를 차지했다.



〈작물별 약제별 출하량 구성비〉



〈작물별 약제별 매출액 구성비〉

농약수입·수출상황

수입

1999년도 농약수입총액은 전년도 2억4천7백44만\$보다 28.4% 증가한 3억1천7백59만\$로 나타났다. 이 중 원제가 75.4%인 2억3천9백59만\$로 나타나 전년도 1억

7천3백92만\$보다 37.8% 증가하여 IMF이전인 97년도 2억4천15만\$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품은 5.9%인 1천8백71만\$로 전년도 보다 92.1%나 증가하였다. 반면 합성원료는 18.7%인 5천9백30만\$로 나타나 6천3백78만\$의 전년도 보다 7.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입국별로 보면 일본이 8천9백79만\$로 28.3%를, 미국이 5천9백42만\$로 18.7%를, 독일이 3천3백60만\$로 10.6%를 각각 차지하여 총 수입액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프랑스 등 20여개국에서 수입되었다.

농약원제 국내 총 수요는 4천3백24억원으로써 이 중 수입원제가 2천8백75억원(2억3천9백59만\$), 국내합성원제가 1천4백49억원(1억2천74만\$)으로써 수입의존도는 66.5%로 나타났다.

수출

1999년도 농약수출은 5천60만\$로 98년도 4천3백29만\$보다 16.9%가 증가하였다. 이 중 농약원제는 총 수출액의 92.5%인 4천6백78만\$로 전년도 보다 12.0%가 증가하였다. 완제품은 7.5%인 3백81만\$로 전년도 1백50만\$보다 153.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교역국을 보면 영국과 독일이 각각 16.1%를, 일본 6.9%, 필리핀 5.4% 등 약 30여개 국이다. **농약정보**